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음 10월 8일) 제24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농정의 틀, 도민의 손으로 전환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위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전복

도내 농업 문제점 공유
농정방향 발표 · 토론
박진도 농어업특위위원장
“지속가능 농어촌 위해
공익적 가치 극대화”



지난 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정을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전복'에 송하진 도지사,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박홍식 전북삼락농정위원장을 비롯해 농업관련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도민들이 농정을 전환을 의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는 전라북도에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이 열려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농업정책을 모색하는 대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와 전라북도(이하 전북, 도지사 송하진)는 공동으로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농정을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전복'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삼락농정 박홍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농업관련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원형테이블에 모여 앉은 도민들은 3시간에 걸쳐 전북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농정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두개 세션으로 나눠 퍼실리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원탁회의에는 농정을 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와 농정을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해 테이블 별로 토론하고 발표한 뒤 이를 종합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펼친 정책대화(타운홀미팅) 순서였다.

참석자들은 농업, 농촌, 농민 정책은 물론 먹거리 부문에 이르는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박 위원장은 격의 없는 모습으로 성실히 답변하며 박스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행사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농정을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다.

전북도는 보람있는 농민, 재능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정분야 민관협치조직인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앞선 농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100인 타운홀미팅 전복'에서도 참석자들은 이러한 전북의 특성이 반영된 듯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이 이어가 호평을 받았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 · 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 등 선도적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화 ·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특위와 전국 9개 도(道)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은 농어업 · 농어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국민들이 제안함으로써 농정을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전국 순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기초한 자율과 창의 농정의 실현 방안 전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특위는 앞으로 4일 경북, 13일 경기, 15일 충남, 20일 전남, 28일 강원, 29일 충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로 100명 규모의 원탁토론회와 타운홀미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박진도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전북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특위의 출범 배경과 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의 주요 농정 이슈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박 위원장은 "농정을 전환을 사명으로 농특위가 발족한지 6개월을 맞아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과 원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 농정으로 바뀌 나갈 수 있도록 농특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전주 MBC 심층인터뷰 프로그램 '반갑습니다' 녹화를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농정을 전환과 국민행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방송은 오는 10일 오전 7시 35분부터 전주MBC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우리아이 유치원 입학 '처음학교'로 편리하게

도교육청, 학부모서비스 개통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가 지난 1일부터 학부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모집 및 선발을 위해 '처음학교' 시스템을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한 유아모집을 진행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국 · 공립유치원 359개원 전체가, 사립유치원은 144개원 가운데 109개원이 처음학교로 등록했다. 다만 도교육청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추후 사립유치원 등록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처음학교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우선모집(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경우 오는 5~7일 입학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어 12일 결과 발표를 하고, 등록은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일반모집은 19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결과 발표는 26일 오후 3시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시민공간 재생 '밀그림'

시,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 구상용역 추진
'시민의 숲 1963' 전체 재생 컨셉 등 종합 고려
시민 의견 수렴, 완성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참여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대표적인 시민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밀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시는 이 과정에서 종합경기장 재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조경 · 건축 · 도시 분야 등 각계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는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총 3억3693만원을 투입해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이전되는 전주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기존 종합경기장 부지 12만 2975㎡를 전주시의 핵심가치인 사람, 생태, 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과 마이스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재생 컨셉 △도입시설 및 운영계획 △구상 △건축가이드라인 △공간배치 △교통 · 조경 계획 △수요예측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시설규모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민의 숲 1963의 전체적인 재생 컨셉트는 물론, △MICE산업 기지 구축을 위한 전시 · 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 방안 △시민들이 문화, 생산,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구축 △아카데미, 공유경제 공간, 공원, 공연장, 생태놀이터, 문화복지시설 등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방안 등을 아우르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도입 시설 종류와 적정규모 △실현가능하고 이용편의 및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구상 △주변여건과 조화되며 각 시설물들의 합리적인 공간구성 △시설별 규모 · 기능 · 특성 · 연계성 등을 고려한 공간구조

및 공간계획 검토 등을 과업내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 1963년 시민성원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에 갖는 시민정신을 계승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별도 구성해 시민의 숲 기본구상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주종합경기장 재생사업 기본구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숲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시는 향후 적절한 상업시설규모와 임대기간 산정하고 기존 서신동 백화점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해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낼 것 △시민들의 기억이 쌓인 종합경기장을 활용해 재생할 것 △관내시설을 최소화해 지역자원을 지켜낼 것 등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을 위한 3대 대원칙으로 정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재생방식을 통해 전주시의 핵심가치인 사람 · 생태 · 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들어선 MICE산업의 혁신기지로 개발하는 방향에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무결 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도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져 시민들의 추억과 역사,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공간"이라며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전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매일 INDEX

4면 - 월드 드론 마스터즈 대회 개최 16면 - 통기타 라이브 이모저모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